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선과 면을 통한 일상 속
갈등 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윤 희 경

선과 면을 통한 일상 속
갈등 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윤 희 경

인 준 서

윤희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2017년 연구자의 석사 학위 청구전에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표현을 분석한 석사 청구 논문이다. 청구전은 2014년 대학원 재학 당시 작품부터 대학원 수업 수료 이후 제작된 2017년까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의 작업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함께 변화한 작품 제작 방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심리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갈등’은 이해관계가 아닌 심리적으로 친숙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친구, 지인과 같은 주변인과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직장에서 경험한 노동조합을 통해 ‘갈등’이 새로운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있던 관계를 망가지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연구자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겪은 개인적인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부정적인으로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긍정적인으로는 1인 시위, 창작물 제작 등의 방법이 증가하였다. 연구자는 SNS를 통해서, 길을 오가며 본 후자의 모습이 계기가 되어 연구자 개인의 감정을 화폭에 풀어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인과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과 여백이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각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백년초가 모델이 되어 표현된 상징적 의미의 선인장이 연구자의 견해와 결합해서 작품에 어떠한 외형적 요소가 중심이 되어 표현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갈등의 양가적인 면을 이해하고, 새로운 연대의식 형성의 계기가 되는 갈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 가지 주제를 편향되지 않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계기가 되며, 개인들이 겪는 갈등을 해소할 방법의 긍정적인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내용적인 전개	3
1) 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을 파괴하는 갈등	3
2) 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갈등	8
3) 상징으로서의 선인장	10
2. 작품의 조형적인 전개	12
1) 선과 면으로 표현 된 갈등의 가시화(可視化)	13
2) 여백으로 표현 된 공간의 의미	17
3. 작품 분석	20
III. 결론	30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차

[작품1] BOM BOM, 80X140cm, lithography and serigraphy, 2014

[작품2] Untitled 22.7x15.8cm,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3] 無 No.1, 90.9X60.6,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4] 無 No.2, 90.9X72.7,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5] 無 No.3, 90.9X72.7,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6] 無 No.4, 90.9X60.6,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7] Virtue from ugly death, 100x70cm, Lino_cut, 2017

[작품8] Coming soon no.1, 51x32cm, mixed media on paper, 2017

[작품9]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30x30, Acrylic and ink on pannel,
2017

참고 도판 목차

- [참고 도판 1] 일러스트레이터 현호의 ‘HUG YOUR BLUE‘ 프로젝트 3
- [참고 도판 2] The Simsons 이미지 (구글 이미지) 5
- [참고 도판 3] 교보문고 합정점 베스트셀러 코너 (구글 이미지) 7
- [참고 도판 4] 당인리 책 발전소 인기도서 소개 게시판 (구글 이미지) 7
- [참고 도판 5] 식물학, 황주리, 228.5×183cm, Acrylic on canvas, 2010 10
- [참고 도판 6] 선인장 이미지 연구, 10x10, Acrylic on canvas, 2016 14
- [참고 도판 7] Knife_drawing no,1, 100 x 70cm, Lino_cut, 2015
리놀륨 판화 기법 연구, 29.7 x 42cm, Lino_cut, 2016 15
- [참고 도판 8] 한국미술_여백의 발견 전시 전경, 리움 미술관, 2007 17

I.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개인이 그들의 주변인과 겪는 갈등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관심은 ‘가정 내 불화, 직장 내 성차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인과의 갈등에 휘말린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꾸준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자는 사회가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의 목소리를 개별적이며 소수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 아쉬움을 계기로 주변인과의 ‘갈등’을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업이 이어지면서 주제를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연대의식의 파괴’로 바라보던 부정적인 관점은 직장에서 참여한 노조 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의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론 1장에서는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SNS와 대중매체 통해 들은 뉴스가 계기가 되어 주제에 주목하게 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구자의 견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연구자 개인의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였는지, 선인장이라는 소재가 작품에 주요 이미지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함께 서술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론 1장에서 논하였던 갈등의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알아보고, 연구자 작업의 주요 조형요소인 선과 면이 작품에 어떤 방식과 의도로 활용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나는 선인장 실루엣과 선인장 가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원 수업 수료 이후 연구자에게 주어진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제작한 드로잉 위주의 작업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내용과 조형적인 측면의 관점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드로잉으로 화폭에 옮겨진 작품들은 각각 어떤 판화 기법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작업 과정을 돌아보며 연구자가 얻게 된 깨달음과, 제작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을 함께 서술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작업의 문제점과 아쉬움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인 전개

1) 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을 파괴하는 갈등



[도판 1]¹⁾

연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층간 소음, 직장 팀원들과의 의견 불일치 같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주변인과 종종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갈등과 이것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잊혔다.

1) 텀블벅, “HUG YOUR BLUE: 너의 우울을 사랑해 부제: Arcana_ Solitude in Blue”, 2018, <https://www.tumblbug.com/hugblue>
HUG YOUR BLUE: 너의 우울을 사랑해 부제: Arcana_ Solitude in Blue는 일러스트레이터 Hyunho가 우울증, 자살예방 후원금 마련을 위해 만든 텀블벅 프로젝트이다. 펀딩 하루 만에 목표 금액에 달성할 정도로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연구자는 SNS와 대중매체에서 연구자처럼 일상 속 갈등에서 야기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보복범죄로 새로운 갈등을 만들었고, 또 다른 이는 1인 시위나 이것을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어서 사회의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후자의 모습은 연구자 내면에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심리적이 고통을 작품의 주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이 파괴되는 원인으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연대의식 형성의 계기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한다.

이에 본론 1장에서는 그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년 ~ BC 322년)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했다.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은 사회의 자식이며, 사회 공동체의 형성자로서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는 어디까지나 개인을 기초로 성립되는 동시에 개인은 사회를 짊어지고 발달시켜 간다는 생각이다.²⁾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보면서 개인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겪는 마찰과 갈등 또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사회적 동물 (social animal, 社會的動物):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적(唯一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용어.

두산백과-사회적 동물 (social animal, 社會的動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37&cid=40942&categoryId=31614>

연구자는 졸업한 중학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연구자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에서 마주하는 친구들이 크게 낯설지 않았다. 이것은 좋아하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의 친구들 또한 계속해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시기에 연구자는 갈등은 사회적인 동물에게 벗어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고통도 동반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갈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지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판 2]

이 생각은 [도판 2]처럼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의 익살스러운 다툼, 복수 장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솔직하고 앞뒤 재지 않는 감정 표현, 사람을 망치로 내리치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쥐덫으로 잡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는 것은 본인이 놓인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자에게 갈등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최근 한국이 어느 때보다도 일상 속에서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주목받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어난 ‘아파트 난방비 조작 의혹’ 문제와 이것으로 인해 본인이 당한 부당함을 국회에서 발표한 일이 있었다.³⁾ 배우가 아닌 한 명의 아파트 주민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부선 씨처럼 어려움에 처한 모두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이 만든 불편한 상황 벗어나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연구자가 중, 고등학교를 다니던 10년 전, 사람들은 주변인과 겪는 갈등을 지인들과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잡지의 고민 코너, 라디오의 청취자 사연 게시판에 하소연하는 정도로 해소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보상을 이끌어 내진 못하고 있지만 이런 행동들은 차츰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 제도 개선을 이끄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거 갈등으로 인해 받았던 심리적인 고통 중 치유되지 못한 채 지나간 연구자의 경험이 떠올랐다. 당시의 고통은 주변인과 공감대가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 소외감, 박탈감이었고 표현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자 답답함, 억울함의 감정으로 연구자에게 남아 이따금 떠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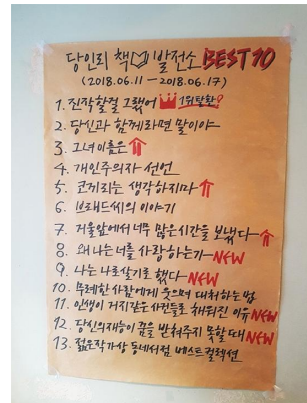
3) 한겨레, 허재현 토요판팀 기자, “김부선 아파트, 보일러 튼 건 귀신일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573.html#csidx8daae78185aec118e99357559d5efd9, 2014, 11. 21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 열량계 조작이 의심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수사를 요청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어서 김부선 씨가 주민들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했다.

며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

연구자는 각자가 처한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혹은 이런 이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구자도 아쉬움 혹은 괴로움으로 남아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알려 상황을 개선하듯, 연구자는 작품을 통해 본인 내면의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도판 3]4)



[도판 4]5)

작품을 제작하면서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들이 연구자의 미성숙했던 사고에서 나온 투정은 아닌 것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생각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하고

4) 구글 검색 이미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onaakim1202&logNo=22099151351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 2017.04.25

5) 구글 검색 이미지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health21c&artSeqNo=10498509> , 2018.07.03.

있는지 알아보고자 ‘책’이란 매체를 이용하였다. 연구자가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만날 필요도 없는 ‘책’이라는 매체의 트렌드가 현대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서점에서 인기 도서를 소개하는 베스트셀러 코너 [도판 3]와 동네 책방이 SNS를 통해 발표하는 게시판 [도판 4]에 갈등을 주제로 쓴 책들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

연구 기간 동안 ‘나 안 괜찮아⁶⁾’와 같은 책 속에는 상처받은 개인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담겨있고, SNS를 통해 독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작가들의 책이 지속적으로 출판되면서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연구자는 신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또 그만큼 연구자처럼 다른 이들도 내면에 해소하고 싶은 고민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고민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2) 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갈등

연구자가 직장에 취직해 노조를 경험하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주변인과의 겪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연구자가 취직 전에 대중매체를 통해 보던 노조는 쌍용차 사태처럼⁷⁾ 다소 과격하고, 난폭한 모습의 집단이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겪은 노조원은 겪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챙기지 못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과격

6) 실키, 나 안 괜찮아, 현암사, 2016

7) 쌍용차 사태 (雙龍車事態):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위키백과-쌍용차 사태 (雙龍車事態), https://ko.wikipedia.org/wiki/쌍용차_사태 (2018.11.09.)

하지 않은 호소문과 민원으로 회사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전시 관람, 연극 제작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노조원들의 직장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었다.

연구자는 노조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을 보면서 한 명의 목소리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수백 명의 목소리가 모여서 하나둘씩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고, 여기서 새로운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연구자는 노조 모임에 참석하면서 직장 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으며, 평소 마주칠 일이 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과 친해지고, 연극, 미술관 관람 등 여러 취미 활동 동아리를 소개받으면서 직장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누군가의 갈등이 새로운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주변인과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상징으로서의 선인장



[도판 5]

어느 날 포털 사이트 네이버 메인에 뜬 황주리 작가의 작품 ‘식물학’

[도판 5]을 보게 되었다. 황주리 작가는 화려한 원색을 사용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식물, 특히 해바라기와 선인장에 묘사한 ‘식물학’ 연작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선인장은 등근 줄기의 칸칸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작가는 선인장이 인간의 삶에서 느낀 ‘생명력, 무한한 아름다움’과 닮아서 작품에 소재로 사용했다고 한다.⁸⁾

선인장 속에는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겪는 희로애락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연구자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인간의 삶과 선인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가는 선인장에서 인간의 인생과 닮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껴서 소재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한다.

8) 네이버캐스트, “서양화가 황주리의 서재 - 황주리의 서재는 책방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007&cid=59153&categoryId=59153>, (2012.08.01.)

연구자는 선인장이 생명력과 함께 뾰족한 가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연구자의 작품 주제를 대입해 보았다.

갈등은 늘 어려웠다. 특히 친밀하던 주변인과 겪는 갈등은 연구자에게 더욱 힘들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상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상대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선인장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뾰족하고 자기방어적인 ‘가시’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이어가듯이⁹⁾, 사람도 자기방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던지고 일어서면서 세상을 더 넓고 크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선인장의 외형적인 특징인 ‘가시’를 연구자의 작업에 가지고 왔다. 갈등을 자기방어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인장이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화되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작품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9) 네이버 지식백과, “선인장의 잎이 가시 모양인 이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4282&cid=47341&categoryId=47341>

- 홍준의 외 3인,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06.20. 재인용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의 식물들은 물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살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 선인장은 비가 올 때까지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오랜 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다. 선인장 잎은 가시 모양인데, 이는 동물들이 선인장의 어린잎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줄기 손상에 따른 물의 손실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2. 작품의 조형적인 전개

이장에서는 1장에서 서술하였던 연구자가 주변인과 겪는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성격의 갈등),(주변인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성격의 갈등)을 바탕으로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작업의 조형요소인 선의 특성을 주로 활용하여 갈등을 가시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조형적인 특성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 제작 초기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이용해 주제를 표현했고 두꺼운 선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작품에서 선보다는 면의 비중이 높았다. 초기 작업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갈등’의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제작하였다.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미지가 설명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실과 비교해서 다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있지만 인물의 표정, 포즈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연구자가 ‘갈등’을 시각화 시키는 첫 과정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연구자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캐릭터 이미지 사용을 점차 줄였고, 선은 형태를 면은 여백을,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 선과 면의 조형적인 특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선과 표현 된 갈등의 가시화(可視化)

연구자는 학부 재학 당시 ‘EBS 지식채널 e-낙서¹⁰⁾’와 ‘세계의 교육현장-창의력을 키우는 프랑스의 미술 교육 어린이 낙서를 읽는 법¹¹⁾’ 두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전자에서는 재개발 지역에 남겨진 낙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을 ‘솔직한 담론’이라고 소개했다. 후자는 아이들의 그림에 주목하며 인간의 가장 순수한 사고가 담긴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낙서를 묘사하였다.

영상을 보면서 낙서가 주제 선정 감각과 다듬어진 테크닉이 표현할 수 없는 작가의 원초적인 감성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상 속 낙서들에서 보이는 조형요소인 즉흥적인 느낌의 선과 즉흥적으로 칠해진 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면서 선과 면을 활용한 드로잉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판화 작품 제작 과정 특성상 주제를 이미지화 시키는 단계에서 계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드로잉은 판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드로잉들은 먹지나 흥분 가루를 이용해 판으로 옮겨지고, 여러 작업과 결합되는 2차 가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된다.

대학원 수업 수료 이후 연구자는 프레스라는 작업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드로잉 중심으로 연구자의 생각을 화폭 위에 이미지화 시켰다.

연구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서명’을 보면서 ‘선’이란 조형 요소가 본인 내면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을 꺼내줄 수

10) EBS, 지식채널 e - 낙서, 2013.09.11

11) EBS, 세계의 교육 현장-창의력을 키우는 프랑스의 미술 교육 어린이 낙서를 읽는 법, 2010.10.12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명은 본인 고유의 글씨체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¹²⁾ 고유의 글씨체에는 서명의 주인만 구사할 수 있는 힘의 강약이 포함되며 이 고유함은 범죄 수사에서도 사용될 만큼 신뢰도가 높다. 글씨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의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성격의 갈등은 다소 불안하고 신경질적이다. 어떤 전형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형태보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이자 혼돈 상태이다. 드로잉에서는 비계획적으로 긁는 선으로 연구자 마음의 기복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업의 주요 조형요소로 선택하였다.

선은 연구자의 작업에서 ‘갈등’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는 선인장에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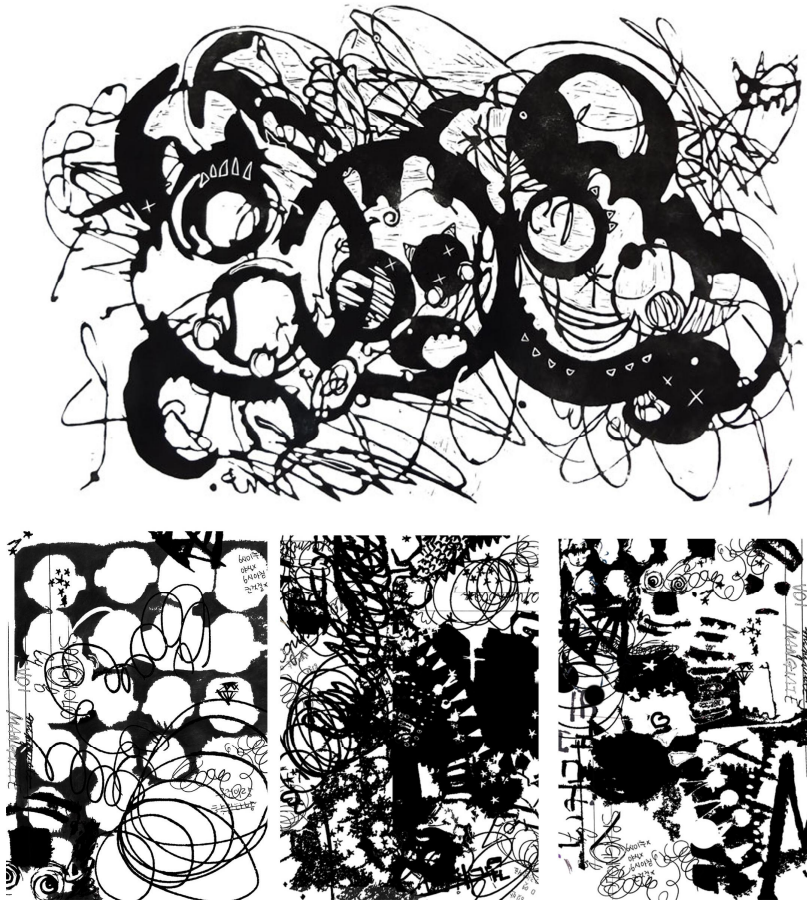


[도판 6]

12) 서명³ 署名 [서:명]: 명사 범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씌. 또는 그린 것.

네이버 사전-서명,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a12b451437c4e4791dc85aa6f2815b2>

[도판 6] 선인장은 둥근 외형을 갖고 있어 즉흥적인 선의 표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백년초선인장’을 모델로 시각화하였다. 선인장을 정물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해체한 후 연구자의 머릿속에 마지막까지 남은 선인장의 실루엣과 가지만을 선으로 표현하였고,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발적으로 표현되던 선을 정돈된 느낌의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도판 7]

연구자가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판 제작 기법인 [도판 7]¹³⁾ 리놀륨 판화는 목판화와 함께 논의되는 볼록 판화의 일종이다. 목판보다 유연한 리놀륨이라는 소재는 조각도로 판을 파내는 작업을 하기 수월하고, 유성 잉크에 적합하고 넓은 면을 얼룩 없이 인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른 기법들과 비교해서 작업 과정이 복잡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섬세한 선의 표현이 필요한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목판화를 많이 이용하지만 곡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각도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리놀륨 판화가 머릿속의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연구자는 즐겨 작업하였다.

연구자는 종이에 그려진 드로잉을 리놀륨에 올릴 때 먹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종이에 그려진 드로잉을 옆에 두고 보면서 굵기가 다른 유성펜으로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판에 이미지를 옮겼다. 종이에 사용했던 선과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드로잉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드로잉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종이에 그려진 선의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재료와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드로잉에서 사용한 선과 가장 유사한 느낌의 선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위해 연필 형태를 갖고 있는 도구들과 함께 먹물, 만년필 잉크들을 연구해 보았다. 그중에서 얇은 나뭇가지를 깎아 연필처럼 만든 펜과 아크릴 물감을 섞은 먹물이 잉크로 가장 적합했고 선을 긋는 첫 도구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잉크를 오래 머금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30cm가 넘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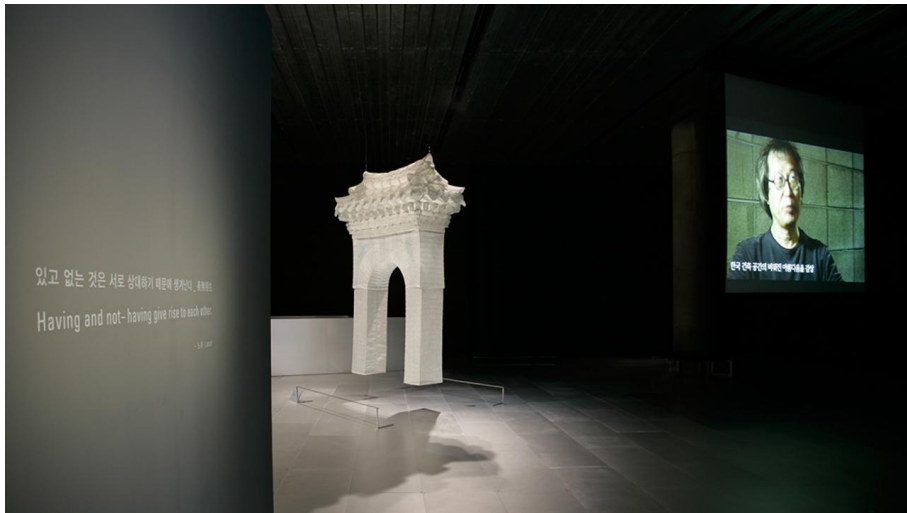
13) 위 : Knife_drawing no,1, 100 x 70cm, Lino_cut, 2015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 혼란스러움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미국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미키마우스 이미지와 자유로운 선을 사용하였고, 유연한 선의 표현을 위해 리놀륨 판화를 선택하였다.

아래 : 실크스크린을 위한 OHP 필름 이미지를 리놀륨 판화로 재구성해서 다양한 선의 굵기를 연습해보았다. 2016

화면에서 선을 그으려면 중도에 잉크가 떨어져 선이 끊어지고는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기성화된 도구를 찾아보았다. 연구 끝에 대나무로 만든 죽 펜을 작업 도구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연필과 비슷한 형태를 가졌으면서 잉크를 오래 머금을 수 있다. 만년필과 다르게 날카롭지 않아 캔버스의 표면을 상하게 하지 않았고, 연구자가 칼로 깎으면서 그어지는 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 적절한 도구라고 판단하였다.

2) 여백으로 표현 된 공간의 의미



[도판 8]

“ 생략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되는 비가시적 영역인 여백(일례로 수묵화에서 빈 채로 남겨두는 공간)은 아시아 문화권 밖에서는 널리 인식된 개념이 아닙니다.”¹⁴⁾

14)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지음. 테마 현대미술 노트- 1980년 이후 동시대 미술 읽기 무엇일, 왜, 어떻게, 두성북스, 2011, p.13
이 문구를 접한 후 본인은 여백을 아시아 문화권의 독특한 특성,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여백의 공간을 미학적 특성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각자의 내적 경험이나 지식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리 수용된다. 여백은 이러한 상상력의 힘을 자극하고 발전시키고, 창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다양한 울림을 던져 준다. 여백은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자 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석과 재창조의 공간인 셈이다.¹⁵⁾”

연구자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드로잉을 화폭으로 옮겨오면서 작품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연구자는 배경을 단순히 넓은 면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를 작품에 특별한 의미를 상징화 시키는 요소가 되길 바랐다.

[작품 1]과 같은 캐릭터 이미지가 사용된 작품 제작의 비중을 줄이면서, 면은 ‘여백’을 의미하는 바탕 이미지와 약간의 선인장 이미지로만 표현되었다. 작품에서 선으로 표현된 심리적인 고통과 갈등의 양가적인 면을 의미하는 선인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연구자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준 주변인들을 의도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서 본인 내면의 감정 해소와 생각 표현에 주목했다.

즉, ‘존재하던 것들이 사라진 빈 공간’이란 의미를 시각화하기 위해 색을 덧입히거나 완전히 비워두던 기존의 배경 처리 방식 대신, 색을 칠하고 그것을 다시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삭제’되었다는 의미성을 부여하여 바탕 이미지를 만들었다.

배경을 제작할 때 2가지 색의 아크릴 물감과 먹물을 번갈아 가면서 색을 입히고 물로 닦아낸다. 한 가지 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2-3가지 색을 함께 사용하면 특별한 형태가 없는 이미지지만 색의 깊이감이 느껴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조형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5) 리움 미술관, “한국미술_여백의 발견 Void in Korean Art”,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 2007.11.01.~ 2008.06.29

다.

연구자는 먹물은 배경 톤을 차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로 사용하였다. 먹물 한 가지만 사용하면 바니시 처리를 할 때 이미지가 번지는 문제가 있어서 바인더나 검정 아크릴을 소량 섞었다. 먹물과 아크릴 물감의 색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아크릴 물감보다 가볍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느껴져서 연구자가 선호하는 재료이다.

연구자는 매 단계마다 지워내는 강도를 다르게 해서 각기 다른 톤의 색상과 붓 자국을 남겨두는 방법을 적당한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며 대체로 2주 정도 시간을 배경 제작에 사용하였다. 적당함의 기준은 드로잉의 이미지가 배경에 올라갔을 상황을 상상하며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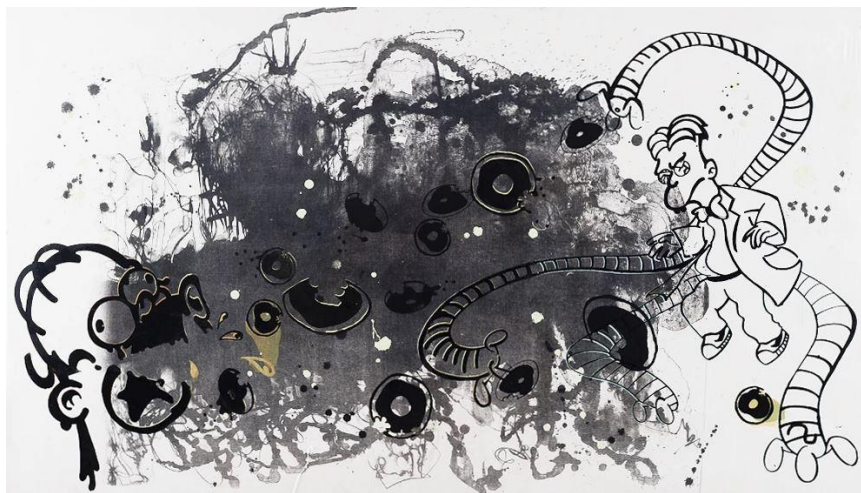
배경 작업이 끝나면 바니시 처리를 한 후 드로잉을 올렸다.

3. 작품 분석

2017년 연구자의 석사 학위 청구전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에는 꼬이고 영킨 선과 여백을 상징하는 면이 잘 표현된 작품들을 선택해서 전시하였다. 때문에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연구자 내면에 자리한 고통을 표현 작품들의 비중 컸다.

이미지의 통일감 없이 표현된 작품들이 한데 전시되면서 전시장은 또 하나의 혼돈이자 연구자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재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작품 분석을 통해 각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신경 써서 작업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각각의 작업은 판화의 어떤 기법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는지 설명한다.



[작품 1] BOM BOM 80x140cm, lithography and serigraphy on fabric,
2014

[작품 1]은 갈등이 주제가 된 첫 작업이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갈등의 상황을 시각화하면서 주제와 어울리는 판화 기법 연구에 목적을 두고 제작했다. 상황 묘사를 위해 평소 관심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 ‘심슨네 가족들(The Simpsons)¹⁶⁾’ 등장인물 이미지를 사용했다. 프로그램에는 북한 핵 문제, 인종차별 같은 현실적인 사회 문제가 에피소드로 종종 등장한다. 비현실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재미만을 위해 가볍게 제작된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점에 연구자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작업의 이미지로 선택했다.

이미지는 제작에는 석판화와 실크스크린 두 가지 기법이 사용되었다.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느낌을 비교하고자 배경 이미지와 캐릭터 이미지에 다른 기법을 적용했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동일하게 사용했다.

배경 이미지로 사용된 석판화는 산만하고 방향성 없이 뿌려진 잉크와 이것이 번져서 만들어진 넓은 면으로 구체적인 형상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광목천에 1도로 판을 찍었고, 흩뿌려진 잉크는 연구자가 갈등이라는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해소되지 못한 불안감, 혼란스러움을 의미한다.

실크스크린을 위한 OHP 필름을 만들면서 화면에 리듬감을 주기 위해 두 캐릭터를 다른 크기로 변형시켰다. 같은 검은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경과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것을 우려해 판을 찍는 위치를 2-3mm 정도 차이를 주면서 밝은 민트색과 노란색으로 2도를 올리고 건조 후에 검은색으로 다시 한 번 판을 찍어냈다.

16) FOX, 'The Simpsons' <https://www.fox.com/the-simpsons/>

맷 그레이닝이 제작한 미국의 폭스사의 애니메이션. 1989년부터 방영을 시작하였다.



[작품 2] Untitled 22.7x15.8cm,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 2]는 연구자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가까웠던 주변인과 멀어지고 단절된 느낌을 받았던 상황을 떠올리며 작업하였다. 심리적인 고통이 선인장으로 표현된 첫 작업으로, 검정 톤의 배경에 올라간 선인장은 주변인과 관계를 가로막는 갈등을 의미한다. 가운데 얼굴 이미지와 결합된 선인장은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연구자를 괴롭게 하던 기억을 의미한다.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주변인과 멀어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2]는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할 것은 염두에 두고 구성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형태를 그리는 것에 집중하였다.

연구자는 선의 회화적인 표현은 석판화를 통해, 디자인적인 표현은 실크스크린을 통해서 재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크스크린을 염두에 둔 작업의 경우 선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삽입하되 가능한 깔끔한 선과 형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작업을 하면서 ‘판으로 제작하게 된다면 드로잉에 어느 부분을 면으로 채울 것인지, 이미지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선 사이에 틈틈이

찍은 점에 적당한 색상은 무엇이며, 몇 도로 구성되어야 할지' 알아보는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선인장이 의미하는 바가 같은 작업은 바탕색을 통일하였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가운데 이미지에 밝은 색상의 바탕을 배치하고 양옆에 차분한 톤의 바탕색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바탕색은 모두 먹물과 colony blue로 만들었으며, 양쪽의 선인장 이미지 경우 바탕 색상의 미묘한 차이로 각 같듯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 無 No.1, 90.9X60.6,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 4] 無 No.2, 90.9X72.7,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 5] 無 No.3, 90.9X72.7,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 6] 無 No.4, 90.9X60.6, Acrylic and ink on canvas, 2017



[작품 7] Virtue from ugly death, 100x70cm, Lino_cut, 2017

[작품 3, 4, 5, 6, 7]을 작업하며 갈등으로 인해 연구자가 겪은 심리적인 고통을 작업에 묘사하였다. 주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기 전의 작업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내면에 남아있던 감정은 답답함, 서글픔, 억울함 등이다. [작품 3, 4, 5, 6]은 아이디어 스케치나 연습 드로잉 없이 처음 그어지는 선이 작품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개별적으로 의미하는 감정 없이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낸 불안감, 혼란스러움을 떠올리며 작업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연구자에게만 느껴진 고통의 양을 시각화했다.

바탕색 작업이 끝난 화폭 위에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을 테이프로 표시한 후 대나무 펜으로 즉흥적인 선 하나를 긋는다. 형태로 구성될 것을 의식하며 자유스럽게 긋되 산만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작업하며 떠올리는 감정 불안, 혼란스러움이 반영되어 선은 꼬이고 엉키기도 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리저리 빠르게 그어져서 잉크가 배어 나오지 못해 끊긴 부분도 있다.

선 긋기가 끝나면 건조한 후 바니시를 바른다. 완전히 건조되면 그어져

있는 선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은 고통을 의미하는 선인장 이미지를 곳곳에 삽입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 색을 칠해 면을 만들면서 가능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완성된 형태는 뒤틀리고 피기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을 연상시키기 어렵다. 형태는 왜곡되어 있지만 연구자는 이 작업들이 심리적 고통을 받던 연구자의 과거 모습을 더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작품 7]은 리놀륨 판화 기법을 이용해 제작했다. 로드킬 당한 고양이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친구와 의견 차이로 다투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앞서 [작품 3, 4, 5, 6]가 연구자의 모습만 시각화했다면, [작품 7]은 연구자가 갈등의 원인이 된 대화 주제 고양이와 마주 놓여 있다. 판을 찍어내는 과정이 끝난 후 이미지의 곳곳에 무속 신앙에 등장하는 색들로 점을 찍어 넣음으로써 로드킬 당한 고양이의 혼을 위로한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연구자를 의미하는 오른쪽 형상은 [작품 3, 4, 5, 6]와 같은 과정으로 그려졌다. 기존의 판화가 연습 드로잉 이미지를 먹지나 OHP 필름을 이용해 옮겼다면, [작품 7]은 형상에 대한 사전 드로잉이 없기 때문에 리놀륨 판에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자르기 쉬운 판의 특성 덕분에 판을 찍기 전까지 고양이와 인물을 따로 제작할 수 있었다. 프레스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두꺼운 종이를 판위에 덮고 발로 밟아서 판을 찍어 내었다. 프레스만큼 균일하게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찍히지 않거나, 너무 강하게 밟아서 얇은 선으로 이뤄진

판이 찢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작품 8] Coming soon no.1, 51x32cm, mixed media on paper, 2017

[작품 8]은 석판화 제작을 염두에 두고 수채화지에 작업한 드로잉이다.

동그라미는 사람의 머리를, 칸칸이 나누어진 긴 형태는 이빨이 드러난 입을, 오른 편에 곡선과 점으로 표현된 형태는 선인장이자 인물의 입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을 형상화 한 것이다.

연구자는 작품을 통해 무심코 내뱉은 가시 돋친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작품 8]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면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감정에 따라 선의 강약 대신 면의 크기를 다르게 했기 때문이고, 가는 선들은 장식적인 의도성을 갖고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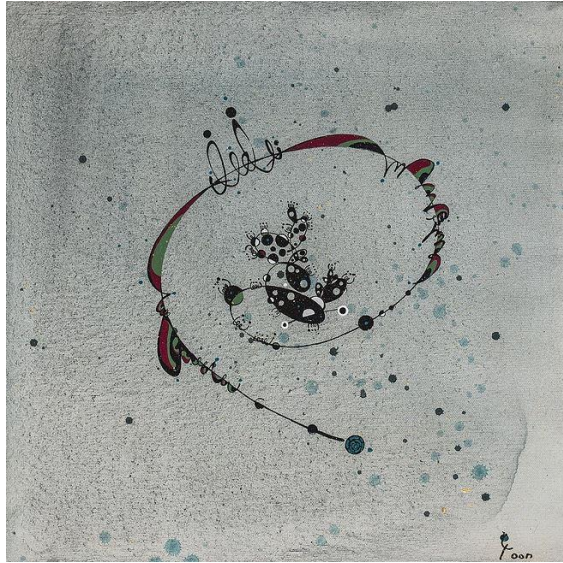
제목 'Coming soon'은 곧 판으로 제작될 작업이란 의미를 갖는다.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 [작품 8]과 같은 연습 이미지로 제작하고 완성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Coming soon no.00'으로 제목을

붙였다.

연구자의 작업들은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나고 화폭 혹은 판으로 드로잉이 올라가기 전에 [작품 8] 같은 연습 드로잉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을 때 느낌을 미리 재현해본다. 공연에서 리허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경 제작 방식 역시 동일하게 색을 입히고 물로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경 톤을 조절해본다. 이미지도 대나무 펜을 이용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올린다.

드로잉을 올린 후 배경과 확연히 분리되는 존재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선과 선 사이를 색으로 채워서 몇 개의 면을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5-6가지 색상의 아크릴 물감을 드로잉 이미지 주변에 점으로 찍어 넣는데 이것은 이미지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추가하는 장식적인 요소이다.

수채화 지는 리놀륨 판과 캔버스에 비해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다. 덕분에 아이디어 스케치와 다른 방향으로 즉흥적으로 형태를 바꾸거나 추가 이미지를 삽입하기도 한다. 아이디어 스케치의 이미지와 수채화지에 그려진 이미지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제작할 것을 결정한다.



[작품 9]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30x30cm, acrylic and ink on pannel, 2017

[작품 9]는 주제가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되어 새로운 공감대 형성의 계기로 바라보는 관점을 시각화하였다.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한 첫 작품이며, 바탕은 석판화로 이미지는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할 것을 염두에 둔 드로잉이다.

작품 중심에 있는 둥근 선은 기존에 방향성 없이 다소 산만하게 그려지던 선과 달리 정돈된 듯 그려졌다. 이것은 작품의 제목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과 함께 연구자 내면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 작업과 다르게 선인장은 인물 형태와 분리되어 그려졌다.

[작품 9]에서 선인장은 공감대를 의미한다. 하나의 둥근 선 바깥쪽으로 사람의 옆모습을 표현하는 형태가 그려져 있고 둥근 선의 끝에 선인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미지는 두 인물의 관계 중심에 공감대로서 갈등이 있음을 의미하며 둥글게 그려진 선은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앞선 작품들이 특정 관화 기법을 계획하고 제작되었다면, [작품 9]는 화

꼭 위에 완성된 이미지를 보고 판화로 제작하고자 마음먹었다. 동일하게 석판화가 바탕 이미지에 사용된 [작품 1]을 참고해서 작업하려고 하지만, [작품 1]에선 바탕은 1도로 캐릭터 이미지가 3도로 인쇄되었다면 [작품 9]는 바탕 이미지를 3도 이상의 석판화로 제작하고자 한다.

Ⅲ. 결 론

개인이 아무리 주변인과의 관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그동안 사회 지도층과 사회 제도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노력하며 누군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행동한다.

이 모습은 연구자에게 내면의 불안을 작업으로 표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이들에게는 글을 쓰고 싶은 욕구,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개인이 자신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극제가 되고, 이들이 만들어낸 노래와 글은 위로와 응원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연구자는 서점을 지나고, 음반 가게를 지나며 보았다.

‘작품의 내용적인 전개’에서 연구자는 직장의 노동조합에서 연구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연대가 성형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서술했다.

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갈등’을 공감대의 파괴, 박탈감, 상실감으로 연결하던 본인의 초기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명 주변인과 마찰을 겪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자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연구자의 주변인은 또 그들의 주변인과 같거나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곤 한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는 자체만으로 연구자는 주변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연구자는 본 논문을 서술하는 과정에

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연구자가 완전히 초연해질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연구자가 작업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판 제작 기법을 배우고 응용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는 수료 이후에 진행되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조형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에 판 제작 기법은 한 가지로 한정되었고 연구자가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 이야기 대부분은 이후 판화로 제작되는 것을 염두에 둔 드로잉으로 시각화되었다.

앞으로의 작업은 조급한 마음을 놓아두고 본 논문을 통해 알게 된 문제점을 하나씩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작업에 주된 조형요소 ‘선’과 ‘면’이 충분한 연구와 연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화폭과 판으로 옮겨져 다소 산만하게 사용되고, 이 때문에 묘사하고자 하는 형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인장의 형태가 가장 아쉬웠다.

이 부분을 조형 요소와 재료, 연구자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작가들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다듬고 개선하고자 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이 가능한 판화 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며 참고한 도서인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에서

“상호 씨는 옳아요. 스스로를 현실에 맞추지 않고 현실을 상호씨에게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이 노력의 끝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결국 삶에 많은 것들을 상호 씨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게 해줄거예요.”¹⁷⁾

라는 글이 나온다. 연구자가 표현하는 개인적인 감정 혼자서는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연구자가 경험한 노조원의 힘처럼 강력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또 하나의 연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논문이 해소되지 못한 내면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소할 방법으로 보복범죄가 아닌 극복의 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의 긍정적인 예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7) 글배우,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21세기 북스, 2018, P 266

참고 문헌

- 길다 윌리엄스. [현대미술 글쓰기] 안그라 픽스, 2016
- B. 클라인트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2006
- 최도빈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 예술] 아모르문디, 2016
-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 두성북스, 2013
- 매리 앤 스타니스체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현실문학, 2011
- 김상엽 [들어가서 보는 그림 동양화] 루비박스, 2012
- 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2008
- 서진수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마로니에북스, 2015
- 시공 디스커버리098 [미로-추상과 기호의 장인] 시공사, 2012
- 게리 채프먼 [5가지 사랑의 언어] 생명의 말씀사, 2010
- 글배우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었다] 21세기북스, 2018
- 실키 [나~ 안 괜찮아] 현암사, 2018
- 곰돌이 푸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R H K, 2018
- 이나가키 에미코 [퇴사하겠습니다] 엘리, 2017

ABSTRACT

A Study on Image of Daily Conflict through Line and Face

- Focusing in Researcher's work -

Yoon, Hee-kyung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a master 's request paper analyzing the contents and the formative expression of the work centering on the work which was submitted before the request of the master degree of the researcher in 2017. Before the bill, it consisted of works from the year of graduation in 2014 to the year 2017, As the researchers' working environment changes,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ways of making works that have changed together and to look for future directions of work.

'Conflicts' accompanied by psychological distress frequently occur not only in relation to interest but also in relation to people who are psychologically familiar and close to geographically close friends and acquaintances. Through the experience of labor unions in the workplace,

I realized that 'conflict' could be a new era of solidarity, but at the same time, it has the power to destroy or destroy the relationship that formed a consciousness of solidarity. I know well.

In recent years, attempts to alleviate the personal suffering caused by these problems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 negative, retaliatory crimes have increased, and as a positive on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emonstrations and production of creations. Through the SNS, the researcher came to the scene of the latter as he traveled along the road, and the researchers' individual feelings were solved on the canva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conflicts between perpetrators and daily life in two perspectives, and analyze how visual changes have occurred in line with the change of viewpoints of lines and spac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lain what kind of external factors are expressed in the works by combining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actus with the view of the researcher.

Through this paper, we aim to provide a time to understand the ambivalence of conflict and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hich is the occasion of forming a new consciousness of solidarity. I would like to present a positive example of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individuals as it becomes a chance to have a broad view of one topic from a non-biased viewpoint.